

전주대 변은진 교수, 제15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
국내 199건·일본 169건 총 368건의
소규모 항일비밀결사운동 사례 소개

전주대는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소속 변은진 교수가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제15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시상식에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변 교수는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선인, 2018)을 저술하며,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 전시기와 시종이라는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선진적인' 인식을 가진 민중의 저항을 조망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1990년부터 20여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199건, 일본 169건의 총 368건의 소규모의 항일비밀결사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심사위원장 박환 교수는 "변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1930~40년대 항일비밀결사운동의 실체를 해명함으로써 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 민중의 노력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변은진 교수는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부터 민중저항 운동과 비밀결사운동에 관심을 두게 됐고, 국가기록원의 총독부문서를 보기 위해 마이크로필름 기계와 씨



전주대는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소속 변은진 교수가 제15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름을 해왔다."라며, "이번 저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밝혔지만, 이후에 사례 하나하나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변은진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에 소속

되어 있다. 연구 분야는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사이며, 대표저서로는 이번 수상작 외에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 인식', '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 이소기야 스에지', '독립과 통일 의지로 일관한 신뢰의 지도자 여운형'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 남성교회, 전주교대에 대학발전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0일 전주 남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2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주 남성교회는 1955년 서문교회에서 개척된 이래 '이웃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라는 이념하에 꾸준한 자선활동에 힘쓰고 있다. 전주교대에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기탁이다. 안효관 목사는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 양극화, 성장정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다시금 희망을 주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우체국,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2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자녀 3명과 부모님을 돌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부모 가정 1세대를 선정하여 2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박모씨는 "혼자서 부모님과 3명의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도와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회, 지역 내 봉사활동 구슬땀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회(공공위원장 박주진, 민간위원장 조완열)는 지난 20일 지역 내 환경정리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위원 10명은 이른 아침부터 면사무소 청사 및 복지회관 내 화단 전지작업을 비롯해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지역 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회장 전삼례)는 21일 하서면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에서 '내일을 바꾸는 농업인의 힘! 한여농과 함께'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미숙 한여농 전북 연합회장, 한여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여성농업인에 대한 표창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한국식 오카리나 행복소리와 영파스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공연과 한여농 회원 장기자랑 등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뜨거운 열정으로 마을이 살아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보절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실시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균)은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에로서향 및 건의사항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과 남원보절파출소(소장 문웅진)의 교통안전교육, 보절보건지소(담당 장명순)가 여름철 제조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살인 진드기 등의 피해에 대비한 감염주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보절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인복지 향상 도모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월 30시간 실행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제2차 열린이사회 개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이강선, 이하 협의회)는 21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열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3회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시상식', '경북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공약이자 협의회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회 사무실 개설에 매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므로, 단위학교의 학교차기 꽃 피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2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355	팔백지사 253-6984	남원지사 622-0995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